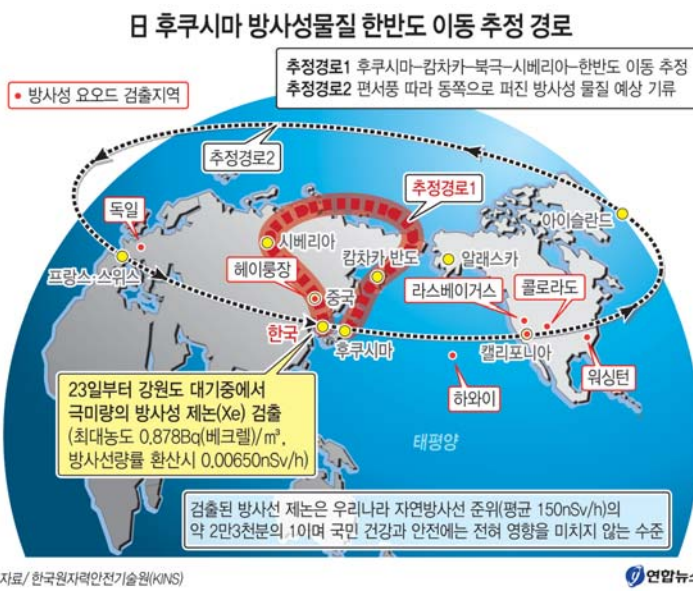


■ 日원전 방사능 오염 확산

한국서도 제논 검출... 정부 "영향 없다" 되풀이

후쿠시마-캄차카-북극-시베리아 거쳐 남하한 듯... 국민 불안 증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갈수록 늘고 확산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이웃나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이 극미량이나마 실제로 검출됨에 따라 불안은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악에 이르더라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미량이라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 **한국도 '극미량' 제논 검출** =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3일부터 강원도 대기중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X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성 제논의 공기중 최대 농도는 0.878Bq(베크렐)/m³이다. 다행히 이는 방사선량으로 환산할 때 0.00650nSv/h로,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준위(평균 150nSv/h)의 약 2만3000분의 1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KINS는 대기확산 컴퓨터 예측모델을 이용해 방사성 제논의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극미량부가 캄차카 반도를 이동한 뒤 북극지방을 돌아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방사성물질 세계 일주** = 실제로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핵안전국에 따르면 26일 하이퉁성(龍口)성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미량 검출됐다.

물론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일본 후쿠시마발(發)로 추정되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워싱턴-라스베이거스 등 뿐 아니라 독일 흑림지대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2주가 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기상청 등 전문가의 설명이다.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

으로만 흘러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도는 시간인데다, 기류 측면에서도 주류인 편서풍 외에 각 지역에서 형성되는 지류(支流)에 따라 세계 곳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 **국내 유입돼도 영향은 미미할 듯**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KINS 관계자는 "사고 기간으로 미뤄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발견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단순히 '방사성 물질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농도와 양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NS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노심이 모두 녹고 설계누설율의 30배 규모로 원자로내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데다 바람까지 우리나라쪽으로 부는, 가능성 낮은 '대재앙'을 가정해도 계산상으로 올릴도 주민의 피폭선량은 0.9mSv(0.3mSv*3)다. 연간 선량한도인 1mSv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이며, 한 차례 CT 촬영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의 10분의 1 정도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방사성 피폭량의 경우 그 값이 아무리 적어도 유·임산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만약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본발 방사성 물질이 확인될 경우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방사선 감시기, 제논 감지 못한다"

타지역 존재여부 확인 안돼

강원도 대기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물질 제논이 극미량 검출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운영중인 전국의 환경방사선감시기는 제논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KINS에 따르면 KINS는 환경방사선을 감시하기 위해 대도시 소재 대학교와 지방기상대, 원자력발전소 주변, 군부대 내 등 전국 70곳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시기는 대기중 전체적

인 환경방사선 준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1시간당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영향을 받는지 등만 측정할 뿐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농도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KINS가 설치한 70곳의 방사선감시기가 아니라 동부전선에 북한 핵 활동 감시를 위해 설치한 별도 장비가 제논을 감지한 것이다. 국내에 이처럼 제논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는 동부전선에 1대만 설치돼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중 제논의 존재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관측변화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물질 제논(Xe)이 강원도 지역에서 검출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특히 물질의 검출이나 방사선 수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방사선 수치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 방사선량은 ▲광주 128nSv/h ▲목포 120 ▲무안 133 ▲여수 92 ▲진도 79 등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측정되는 광주·전남지역의 강수와 낙진, 공기 부유진에서도 다행히 이날 현재까지 제논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량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김재철(62·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장은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특히 상황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기 kimho@

日수입 축·수산물 정밀검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 대응팀도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매년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방사능 오염 여부 파악을 위해 먹장어, 명태, 고등어, 꽂지 등 태평양 주요 4개 어종에 대해서도 주 1회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연합뉴스

■ 제논이란

방사성 제논(Xe-133)은 우라늄-235의 핵분열 과정에서 직접 생성되거나 요오드-133이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변하는 물질로,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폭발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물질이 된다.

다른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 세슘-137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체 위험성은 낮은 물질이다.

이 물질은 인체에 들어갈 경우 폐를 주로 통과하지만 폐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폐가 오랫동안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폐포(허파과리 :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줄어들며 미량 검출될 수 있다.

2호기 물웅덩이 10만배 방사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실 지하에 고인 물웅덩이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원자로 냉각수보다 10만 배나 높은 1cm당 1900만 bq에 달했다고 도쿄전력이 28일 발표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배수구 부근 바다에서 법정 농도 한도의 1150배에 이르는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새벽 통상 1cm당 수백bq 정도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이처럼 매우 높게 검출됐으며 "원자로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연

료의 수%에서 수십%가 손실했을지 모른다"며 누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호기 물웅덩이의 방사성 물질은 지난 24일 근로자 3명이 피폭된 3호기의 웅덩이에 비해 10배나 높은 농도다.

또 도쿄전력은 2호기의 물웅덩이 표면에서 시간당 1000mSv 이상의 방사선량을 측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4일 3호기의 측정치 400mSv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간당 1000mSv이면 그 장소에 30분 서 있거나 해도 림프구가 줄어들고, 4시간 머문 사람의 절반은 30일 안에 숨길 정도로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32년이 된 28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對리비아 작전지휘권 나토로

지난 19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서방의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이 마침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양된다.

나토는 이날 상주대표부 대사급 북대서양이사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했는데 나토가 특정 분쟁에 개입하려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NAC에서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나토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대 리비아 무기 수출금지 감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영에 더해 전투기, 전폭기를 이용한 지상목표물 타격 작전 지휘권도 행사하게 된다.

라스부엔 사무총장은 "최고 사령관에게 이 결정을 즉시 발효해 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1A1전차 작년말 생산 재개

지난해 변속기 결함이 발견되어 생산이 중단됐던 육군의 주력전차인 K1A1이 그해 12월30일부터 생산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작년 12월 중순 하달된 국방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이런 결정은 작년 9월15일 K1A1 전차 성능 시험과 관련한 방사성의 발표를 무시한 것이라 지적이다. 방사성 시험을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방사성 관계자는 "성능시험은 다음 달 8일에 예정되어 있다"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50m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해대재교
관카골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용매매

- ▶면적: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 관리사 15평(기든가능) 8미터 도로점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점)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지역특성: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대 지: 700평
- ▶건 물: 415평 (공장.사무실.기숙사)
- ▶전 기: 400kW
- ▶매매가격: 13억

회순 남면 매리 집중지매매

- ▶면 적: 1,800평(보전관리)
- ▶건 물: 건물 32평
- ▶매매가격: 2억원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소명서건너편)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